

국 문 초 록

로베르토 블라뇨는 『먼 별』(1996)과 『칠레의 밤』(2000)에서 칠레 군사 쿠데타와 독재시기에 나타난 권력과 지식인의 공생과 유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권력을 증언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 기존 칠레 쿠데타 소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쿠데타 소설이 푸코가 말하는 고전주의 시대 권력의 형태-신체형, 의식-에 집중하는 반면, 블라뇨는 작품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미시권력의 메커니즘과 그들의 순종적인 신체로 작동하는 지식인의 행태를 분석한다. 『먼 별』의 카를로스 비더와 『칠레의 밤』의 세바스티안-이바카체는 권력과 공생하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이들을 통해 그간 권력이 감추려고 했던 것, 그래서 칠레 쿠데타 소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권력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은 여러 차례 권력과 공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앙헬 라마는 『문자도시』를 통해 도시 엘리트 지식인들의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진 프랑코는 『문자도시의 몰락과 붕괴』에서 ‘봄’ 소설을 냉전시대의 산물로 보았다.

두 작품 모두 권력과 공조/공생하는 지식인에 대한 블라뇨의 ‘환멸’이 관통한다. 피노체트에 의한 칠레의 단절과 고립,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걸친 좌파 유토피아 혁명의 좌절, 그리고 문학의 변절을 경험하면서 탄생한 블라뇨의 환멸은 비단 칠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삶의 여정이 보여주듯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맞닥뜨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시대인식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사회에 대한 블라뇨의 환멸은 소외받는 작가상, 예술가의 탈주라는 모티프를 탄생시킨다.



또한 알베르토 모레이라스의 개념을 토대로 발전시킨 아벨라르의 포스트 독재 이론의 도입은 볼라뇨의 환멸에 대한 분석을 경제적인 맥락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아벨라르는 포스트독재 이론을 통해 1990년대 이후를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전환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으로 규정한다. 경제적 궁핍과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작가는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내 문학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작가는 또다시 시장경제의 순종적인 신체가 된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포스트독재 시기의 문학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볼라뇨 문학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볼라뇨의 문학작품은 라틴아메리카 문인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조롱이며, 라틴아메리카의 질곡의 역사에 대한 소묘이고, 소외받는 작가들에 대한 경의다.

주요어 : 로베르토 볼라뇨, 칠레 군부 독재, 문학, 권력, 환멸

학 번 : 2007-22695

